

# 광양시 50억 투입 농촌마을 10곳 대대적 환경개선

광양읍 본정마을·진상면 삼정마을 등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만들기 추진 국비 35억·시비 15억 등 2년간 지원

광양시는 광양읍 본정마을 등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0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 개선을 통

해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광양지역 10개 마을에 국비 35억원, 시비 15억원 등 총 5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추진 대상은 지난 2018년 선정된 광양읍 본정마을, 옥룡면 남정·갑곡마을, 진상면 삼정마을, 진월면 대리마을, 다압면 관동마을 등 6개 마을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착공했다.

지난해 선정된 광양읍 신두·해두마을, 봉강면 지곡마을, 옥룡면 울곡마을 등 4개 마을은 올해 기본 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2개 마을, 2019년 4개 마을, 2020년 6개 마을, 2021년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공

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10개 읍면·시공사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다운 마을을 만들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이 넘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코로나19 장기화에 모든 시민 상하수도요금 2개월간 50% 감면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경제적 타격을 클 것으로 판단돼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을 대상(1만 8600전)으로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이는 총 18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다만, 관공서와 중견기업 이상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 완료...용지 분양 박차

지역전략산업 연관 업종 유치 기대 투자 문의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시는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3지구 조성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명당3지구는 43만7998㎡의 부지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제조업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대상 용지면적은 30만7469㎡이다. 산업시설용지 30필지 28만3403㎡, 지원시설용지 39필지 1만5913㎡, 상업용지 2필지 1431㎡, 주차장 시설

용지 3필지 6722㎡ 등이다.

지난해부터 선분양을 시작해 현재까지 분양된 용지는 산업용지 5필지, 지원용지 21필지, 상업용지 2필지 등 총 28필지 5만155㎡이며, 분양률은 필지수 대비 37.8%다.

모든 업종 유치 가능한 상업용지는 100% 분양 완료됐으며,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은 53%이상 분양됐다.

산업시설용지는 연료전지 발전업체, 운수업체 등에 16.7%가 분양됐으며, 투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명당3지구는 국도 2호선과 국도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에서 10

분 거리에 있다. 인근에 광양제철소와 제철 관련 연관 국가산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위치해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변에 배알도 수변공원,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망덕산에서 배알도로 연결되는 짚와이어 등을 가축친화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광양시는 금융권 대출 추천(토지 매각금액 80%)과 지원시설용지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0.6%(지원용지 2억원 기준)로 분양계약당일 광양시 산단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감도.

광양시 관계자는 "명당3지구 준공으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관 업종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광양만권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옥룡 도선국사마을 야외 작은도서관 개관

전화부스 활용 개방형 운영

광양시 옥룡면 양산 도선국사마을에 전화부스를 활용한 야외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사진>

작은 도서관은 옥룡면청년회가 지역주민과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쉬어가고 책과 함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전화부스 미니 도서관을 설치했다.

이 도서관은 옥룡면 양산마을 사포약수터 만남의 광장에 설치돼 아동 청소년 서적부터 소설, 에세이, 시집 등 어른까지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도서 100권이 비치됐다.

책방은 도서 출납일지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꺼내보고 다시 꽂아놓는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도서와 부스 청소는 청년회가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철 옥룡면 청년회장은 "도선국사 마을은 체험거리가 있고 백운산 등산객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며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독서의 즐거움도 찾는 문화 놀이터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옥룡면청년회(회장 이철)가 도선국사마을에 전화부스를 활용한 야외 작은도서관을 개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광양시 제공>

## "항만·해운물류 아이디어 찾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R&D 대국민 공모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주간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YGPA,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개방형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항만·해운물류 분야로 공사의 연구개발 사업 등에 적용이 가능한 R&D 부문이며 토목 신공법, 환경,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과 신기술 적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접수 가능하다.

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이나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계획 및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기업의 경우 최우수상 1건(500만원), 우수상 2건(각 200만원), 장려상 2건(각 100만원)을, 개인은 최우수상 1건(200만원), 우수상 2건(각 100만원), 장려상 1건(50만원)을 각각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채택된 아이디어는 향후 공사 신규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후보과제 발굴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식 과제화 해 기술개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골약동 주민센터 신축 순조 89억원 투입 내년 1월 준공



광양시는 골약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건립공사(조감도)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지하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상 1층 공사를 착수하면서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 기원행사를 열었다.

이 공사는 기존 골약동 주민센터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돼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 89억4000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착공,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475㎡ 규모로, 근무환경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광양시 최초로 패시비디자인을 도입하고 녹색건물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시공한다.

민원실, 사무실 등 주민센터와 프로그램운영실, 체력단련장, 정보화교육장, 다목적강당 등의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골약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행정·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들간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